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숭고한 사업을 우리 손으로 이룩.

국민의 무병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이야말로 그
것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지대하며, 본 사업을 알차게 전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사명 의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관 영

다사다난했던 병인
년이 가고 희망찬
정묘년 새해를 맞
이하여 먼저 협회
를 도와주신 유관
기관의 여러분과 본
회 임직원 여러분
께 심심한 사의와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선
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하시는 13개 시도지부의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시설의 증설, 제도 조직의
정비 및 각종 검사장비의 보강, 검사기
술의 세련등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발
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 건협은 그동안 기생충관리사업을

위시하여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을 위한 국민 건강검사사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착실한 정착을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의 모체인 기생충박
멸협회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기술과
인력 및 시설·장비 그리고 소중한 경험
을 토대로 하여 '82년 4월 발족한 건강
관리협회를 발전적으로 흡수·통합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발족함으로써 새로
운 단계로의 전환과 도약을 다짐하였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82년 발족이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
한 건협에 있어서 4년이라는 짧은 세월
은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발돋움시
도하기 위한 준비단계 였다고도 할 수 있
겠습니다.



●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임상병리학적 검사 외에도 역학적 조사사업, 국제간 학술교류 및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 계몽사업을 더더욱 활성화하여 가일층 사업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87년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건강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이자 변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혁기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하는 것이 앞으로 건강관리 사업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국민건강관리의 체계화, 더 나아가서는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신념 아래 건강관리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새 출발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틀을 다져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직원 모두는 훌륭한 이념사업을 구현하는 선구자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 협회 Image 부각에 힘써야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기생충박멸협회는 창립 이래 23-4년간을 오로지 우리나라 국민건강 증진의 일인인 기생충박멸 사업에 주력하여 과거 60년대 90%이상의 기생충감염을 때문에 들어야 했던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일소하여 세계에서 드문 치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는 새로운 차원에 부응하여 건강관리사업을 발전시키기에 이르렀음은 모두가 경하해 마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경제발전으로 인한 의식주생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신생물(암 등)병, 간염 등의 현대병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인병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발전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층. 더 나아가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사회·국가적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무병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이야말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지대하며, 본 사업을 알차게 전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사명 의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인병은 중년 이후의 연령계층의 이환율이 높으며 자각증상 또한 초기단계에는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되고 또 치료시간이 장시간 소요될뿐만 아니라 치료비용 또한 막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의 난점은 개인적인 부담은 가중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수지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의 유도”가 그 목적인 건강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 정부사업지원과 함께 국민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

어준다는 의미에서 무척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86아세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루었고 '88올림픽이라는 국제적 대행사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국력을 세계에 과시해야 할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업적을 경험삼아 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임상병리학적 검사 외에도 역학적 조사사업, 국제간 학술교류 및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계몽사업을 더더욱 활성화하여 가일층 사업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은 지금부터임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의 굳건한 자세를 가다듬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숭고한 사업을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긍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므로써 87년도도 보다 알찬 한 해가 되도록 전 직원의 각오와 결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전 가족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필자=건강관리협회상무이사)

알림

이번 2월호부터 동정란, 숨은 일꾼 찾아서, 건강상담실, 우리과 자랑등이 신설되었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건강소식 편집실